

# 하나의 기도

사무엘상 2:1-10

최복순 목사님

친정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다.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았는데, 집중훈련 중이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붙었다. 그랬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거기 가서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으면 된다.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육신의 안일과 행복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일에 내가 결단하고 올인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2003년에 친정을 떠났는데, 그 후의 일들이 주미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류목사님 만난 다음으로 최복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 축복이었다. 민폐를 많이 끼친 딸이 왔구나 싶어서 황송하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목사님이 내 버팀목이 되었고, 복음운동의 깃발을 들게 해 주셨다. 최목사님의 배경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은 최목사님의 배경을 많이 누리고 계시는가.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치를 잘 모르는데, 절대 안 된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다. 14년 만에 목사안수를 받고, 가장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서서 설교하는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 감사 요청을 받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고민했다. 설교는 참사랑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 하신다. 그래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과 입을 주관하시지 않는다. 오늘 4, 5, 6예전도회 회원들을 보니까 소망이 보였다. 저 엄마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미 사단의 왕국은 무너졌다. 한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엄청 많더라.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이익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 1. 문제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한나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자였다. 태를 단으시면 임신이 안 된다. 사업이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1) 지금 브닌나가 계속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면박을 주고, 약한 부분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다. 사단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약한 부분을 귀신을 알고 있다. 그 부분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통로로 들락거린다. 세계 복음화 못하도록 여러분과 친하게 되려고 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한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가. 그분이면 충분한가. 자녀문제, 경제문제, 부부문제, 가정문제, 후손문제, 전부 해결이다. 나에게 있는 오래된 불신앙, 창세기 3장의 쓴 뿌리가 우리 속에 뿌리내리고 자리잡으니까, 다른 것은 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못 믿게 만든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었음이 체험되어야 한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체험되어야 한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왜 참 평안이 없는가?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나는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나님은 창세 전, 영세 전에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가? 어느 정도인가? 요3:16이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누림이 안 되니까, 교회 오면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행복한 척 하는데, 혼자 있으면 나는 왜 이런가, 이진 뭐하는 것인가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신33:29이다. 이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대박을 맞았다. 여러분의 과거가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시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상처, 열등감,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시체다. 이것을 내던져야 한다.

(2) 한나는 자기 영적인 문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다. 브닌나는 아이 낳았다고 늘 잘난 척을 하는데, 한나는 늘 속이 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문제를 놓고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는 응답이 안 오는 것이다. 오기로, '나도 보란 듯이 낳을 것이다' 할 때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데 한나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도한 것이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창3:15, 출3:18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 응답된 것이다.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제목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셨을 텐데, 무응답도 응답이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것이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천 가지, 만 가지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 하나님 떠난 것이다. 죄 때문에 떠났다. 죄 짓도록 한 것이 사단이다. 이것이 근본문제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음이 믿어져야 한다. 그래야 오직 예수가 믿어진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고집, 우리 생각, 우리 경험대로 하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따라간다고 고백했다(시119:105). 여러분, 혹시 혼란에 빠져 있지 않은가? 지금은 영적인 혼란의 시대다. 3단체가 일어나고, 모슬렘이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북한이 이상하고, 일본에 재앙 일어난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났다. 스쳐 지나가지 말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어라. "그래도 느낌이 있어야지!"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내 생각은 아닌데..." 그게 창세기 3장이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라. 도루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참사랑교회가 드러져야 하지 않다. 빛이 없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지는 것이 현당 아닌가. 아직 뭔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않다. 진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라.

브리스가 아굴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주셨다. 그 사건을 통해 침을 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던 장로님을 만났다. 지금 나와 같이 사는 김경환 장로님이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모든 것을 여자 때문에 빼앗기고 노숙자가 되어서 영등포에서 3년 동안 살다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분을 만나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후두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2002년 11월 11일이다. 그때 장로님과 같이 남한산성에 올라갔다.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암? 암. 고쳐주고말고" 한나의 기도를 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기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의사가 이야기 하는데, 나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했다. 의사 말은 참고만 하라.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좀 하다 가야 할 것 아닌가. 제자는 좀 세워놓고 가야 할 것 아닌가. RUTC는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기도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틀린 기도제목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제목을 잡아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 확실한 결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후천적인 장애가 되니까 복음이 없으면 뛰어넘을 수 없었다. 법대 출신 청산유수 아저씨가 이제 말문이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중년에 만난 것은 육신의 만남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이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아글라처럼 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이 서론이고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이 멀쩡할 때 신학원에 입학했다가, 목에 구멍 뚫린 채로 9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다. 복음 없는 자가 머니 많으면 죄 짓게 된다. 복음 없는 사람은 토근 하나 달랑달랑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안 짓지. (웃음) 정말 우리는 교회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왜 직장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 2. 한나가 받은 응답

(1) 한나는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나의 기도를 보라. 자기가 어려웠던 것을 전부 기도로 표현한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라.

(2)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이 높으시면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가져야 한다. 이게 없으면 불신자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름을 묻는 것이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약이 분명한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성공으로 이끌어간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3)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창3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4)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5)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마6:16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반석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6)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져라.

(7)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느니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내가 여기에 8년 정도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만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고, 고등학교는 성경학교를 나왔다. 신학교는 비정규 학교를 나왔다. 나는 김정고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93년에 다락방 테이프를 처음으로 전해 듣고 이것이다 하는 결론을 냈다. ‘진도폭발은 해도 폭발은 안 일어나고, 발바닥전도 무슨 전도 다 했는데 안 되었는데, 이것이구나. 나는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니구나.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전에는 계속 성경통독을 하고 그랬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경을 새로 보니까,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 조용히 전도학교도 다니고, 어찌어찌하여 합숙 훈련도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운동하는 교회에 인도받고 싶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밖에 없으니 안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것이 맞다면 이런 나라도 받아주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이력서 보자는 말도 안 하고, 전화번호 하나만 주고 가라는 것이다. 다락방 하면서 이제는 인본주의를 안 쓰겠다고, 이력서 안 보고 성령인도를 받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목사님이 모든 것을 믿고 마음대로 사역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맛을 보았다. 그 현장 체험이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된 것이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버팀목이 되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묶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후대를 100% 책임지신다. 걱정할 것이 없다. 생후 80일 만에 아버지를 잃은 우리 딸을 하나님이 키우셨다. 지금은 남편과 같이 캄보디아 선교로 들어가 있다. 2012년에 세 딸을 데리고 들어갔다. 영어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취직이 되어서, 2천 달러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거기에서 장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창3, 6, 11장을 통해서, 행13, 16, 19이 문화, 개인주의, 자기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기 전에 나에게 먼저 이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영적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필요함을 가지고 답을 내고 기도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와 있다. 마음껏 이것을 누리시기 바란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기도는 마6:33,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나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일에 올인 하는 것이다. 진짜 말씀을 잡아라. 강단메시지, 본부 메시지, 기도수첩 잡고, 매일 성경 읽으면서, 어디에 헌신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라.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했다는 칭찬을 받으라. 나 한 사람이 언약으로 충분하면 영적 흐름을 바꾼다.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다. 창 3:15로 힘을 얻으시고, 늘 승리하고, 교회를 마음에 품어라. 경제 없다고 징징대지 마라. 하나님께는 다 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 괜찮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없다. 전능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찬양이 부흥되는 소식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